

14. 지구에 오게 될 지옥! 너희는 사탄이 지배하기를 원하였고, 여기 있어.

2014.12.13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이 메시지는 저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메시지에요. 오늘밤 음악이 흘러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저는 음악을 끄고 주님과 함께 앉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지구에 오게 될 지옥. 말그대로 지구에 오게 될 지옥이야. 할리우드가 꿈꾸거나 만들수 있는 어떤 공포영화보다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 지구에 올 거야. 다가오는 일의 중대함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구에 남겨지게 될 거야.

(클레어)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한 남자가 도시 한가운데의 건물에서 초고층 건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사업가였어요. 그는 땅에 쓰러졌고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그는 시멘트벽에 기대어 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놀라움과 압도당함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단지 밖에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요.

(예수님) 많은 무고한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절름발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기관은 사람들을 계속 무지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도록 프로그램화 시키고 있어. 오 클레어, 이것들은 지구에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 대신 그들에게 제발 이야기해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계획한 것들이 아니야. 절대로. 나는 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낙원을 계획하였어. 말그대로 낙원을.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그 결과들을 수반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결과들을 통해 교육기관과 그 세대의 대중문화를 넘어서 나를 부르고 나를 선택하는것을 반드시 배워야 하기 때문이야.

그들은 반드시 깊게 들어가야해. 나는 그들을 깊고 더 깊이 불렀어. 나는 그들의 안에 나의 말들을 깊게 심어놓았어. 그들의 양심의 깊은 곳에 나의 사랑과 경고로 그들을 부르는 편지를 남겨 놓았어. 하지만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너희들의 반짝이는 문화로 대체되었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고 싶어하지만 RFID 칩이 그들을 죽지 못하게 할 거야. RFID 칩에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술이 있어. 그들은 죽음을 찾을 것이지만 죽지 못할 거야.

(클레어) 저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 말하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리에서 뛰어내릴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 그럴수 있을까? 마음이 조종당하고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인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일으키기 위해 사탄이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너희들은 전혀 알지못해. 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나의 생명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나를 파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하여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말할 수 없는 공포.. 하지만 나의 자비가 승리할 거야 클레어. 나의 자비가 나를 부르는 사람들의 육체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데려갈 수 있어.

(클레어) 하지만 RFID 칩을 이식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한테 자비가 없다고 생각해? 그들에게는 너무 늦었어. 그들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죽음은 정말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고, 나는 그들의 영혼을 육체에서 분리킬거야. 이 악한 세대의 사탄숭배자들의 손에서 영혼과 영을 자비롭게 데려갈 거야.

(클레어) 주님,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메시지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그냥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정말, 매우 심각하게.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거야. 이 악하고 사악한 세대가 산것은 완전한 거짓말들이야. 그들이 판것은 이 세대를 속이는 것이야. 그들에게 닥칠 현실과 닮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파멸을 위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그들의 탐욕으로 그들이 지구에 낳은 재앙과 역병에 그들도 파멸당하는 것은 당연해. 그들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지하 도시들이 용암에 삼켜지는 것이 당연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때를 위해 사람들을 지구로 데려온 것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들을 위한 파멸을 계획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의 교만함과 반항으로 그들은 거짓말의 아버지인 사탄에게 통치를 넘겨주었고, 사탄은 자신의 일을 잘해왔어. 그들은 최고로 지성적이고 호화로운 새로운 세상의 삶을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거짓말로 속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불타는 무덤에서 죽게 될 거야. 이해하겠어? 내가 돌아왔을 때 완전한 혼돈이 있을것이라는 것을?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죽여야하는 흉악한 본성의 괴물들이 있을 거야.

(클레어) 하지만, 주님, 환난의 끝에 3일동안의 어두움과 지구를 정화하는 불은요?

(예수님) 맞아, 나는 정말 불로 정화시킬 거야. 하지만 모두 죽지는 않을 거야. 반드시 파괴되어야 하는 영혼이 없는 흉악한 괴물들이 구덩이에서 올라올 거야. 악마들은 묶이겠지만, 동물과 사람이 섞인 신체부위로 만든 인공지능의 괴물들이 여전히 지구를 돌아다닐 것이고 그것들을 없애야해. 정의하자면, 세상은 쓰레기더미가 될 것이고 나는 다시 재건할 거야. 하지만 해야할 일들이 정말 많아.

내가 슬퍼하는 것은 내 메시지를 듣지 않고 등을 돌린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야. 그들은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을 선택하였고, 나의 메시지를 듣기위해 그들의 삶을 멈추는 것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귀를 막았어. 대학살이 올때까지 그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의 불과 진노에서 구원받기에는 이미 너무 늦을 거야. 그들은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기적인 야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고 구원은 그들을 피하게 될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결코 인류에 대한 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싶어. 나는 나의 딸과 아들을 위해 동산을 창조하였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만들었어. 이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너희들도 보다시피 너무 많은 악한 것들을 나에게 뒤집어씌우려고해. 왜냐하면 사탄은 자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사탄은 가능하다면 모든 창조물들이 나에게 대적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어.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의도하지 않았고 이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대는 알아야해. 너희들은 나를 탓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절대로 이것들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악의 편에 섰고, 악이 이 상황을 만들었어. 내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주먹을 들고 그들이 지구에 만든 이 상황들에 대하여 나를 저주해. 하지만 지구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인류, 너희들이야.

(클레어) 하지만 주님, 대접을 쏟은 것은 주님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참조)

(예수님) 그리고 그 대접은 사탄이 계획하지 않았다면 부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너희들은 사탄이 지구를 지배하길 원했고, 그 세상이 여기 있어.